

남파(南坡) 박찬익(朴贊翊) 집안 소장 단군영정

김성환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한국사 전공

sunghwan@ggcf.or.kr

- I . 머리말
- II. 남파 박찬익 집안의 독립운동 자료
- III. 동아일보의 단군영정 현상모집 캠페인
- IV. 박찬익 집안 소장 단군영정
- V. 맷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2013~2015년 3년에 걸쳐 경기도박물관에 기증된 독립운동가 남파 박찬익(朴贊翊, 1884~1949) 집안의 독립운동자료 중에서 단군영정(사진본)을 간략히 소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¹⁾ 단군영정²⁾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한말 민족주의의 대두와 함께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조선혼(朝鮮魂)’ 등에서 찾았고,³⁾ 이른 바 단군민족주의⁴⁾의 실체로서 단군이 부각되면서이다. 단군영정 봉안을 위한 움직임과 이에 대한 대중에게의 보급 노력은 당연히 대종교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920년대 초반 동아일보의 단군영정 현상모집 캠페인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또 대종교에서 갈라져 친일 성향을 보였던 단군교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글에서는 우선 박찬익 집안에서 전해오던 단군영정을 중심으로

-
- 1) 2013년 늦은 봄, 한국광복군이었던 朴英俊(1915~2000) · 申順浩(1922~2009) 부부의 딸인 박천민씨가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박천민씨와 오랜 친구였던 필자의 은사를 통해서 들었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중 외교를 전담했던 남파 박찬익 선생의 손녀이기도 했다. 독립운동사가 필자의 연구 영역에서 가깝지 않지만, 박영준 · 신순호 선생께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은 위낙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필자 또한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면발치에서 간간히 그 소식을 엿어 듣곤 했다. 그들 역시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던 대종교와 깊숙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랬다. 참고로 필자는 대종교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간 대종교의 역사관 및 자료 소개에 대한 몇 편의 논문을 쓰기도 했다. 김성환, 「대종교계 사서의 역사인식: 상고사 인식을 중심으로」, 『한민족연구』 2(한민족학회, 2006); 「단군교포명서의 단군 인식」, 『국학연구』 13((사)국학연구소, 2009); 「단군전승의 양상을 통해본 규원사화의 자료적 성격」, 『대동문화연구』 86(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단군 인식의 확장과 단군자손의식」, 『민족문화논총』 61(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5) 참조.
 - 2) 단군영정의 전래에 대한 개략에 대해서는 조준희, 「단군영정」, 『알소리』 7(국학연구소, 2005) 참조.
 - 3) ‘朝鮮魂’은 ‘朝鮮心’과 함께 1930년대 조선학운동의 전개에서 핵심 개념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전인수의 연구 성과를 따른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오랫동안 문명의 중심으로 여겼던 중국을 상대화하고, 아시아 근대화의 화신으로 등장한 일본과 구별하여 조선인들의 정신적 독립을 통해 중국을 과거의 유산으로 만드는 동시에 식민 지배국인 일본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서구의 근대사상을 주체적으로 소화하기 위한 정신적 · 민족적 축, 즉 중국 · 일본 · 서구와 구별되는 조선인으로서의 고유한 정신이나 마음”을 조선혼, 조선심으로 규정한 바 있다. 전인수, 「김교신의 조선산 기독교에 대한 역사적 이해: 조선혼과 조선심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47(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참조.
 - 4) 정영훈, 「한국사 속에서의 ‘檀君民族主義’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28(1995); 「한민족의 정체성과 단군민족주의」, 『민족문화논총』 55(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3) 참조.

이런 점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대종교의 중광과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단군영정의 모습, 둘째, 동아일보의 단군영정 현상모집 캠페인의 결과로 마무리된 대종교 단군영정의 정착 과정, 그리고 대종교와 단군교의 단군영정 봉안과 보급 과정 등에 대한 문제들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한말 일제강점기 단군영정의 보급과정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한말 일제강점기에 유통되었던 단군영정에 대한 전체적인 범위를 아우르고, 이를 화본(畫本)에 따라 분류하여 갈래를 정리하여 그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함을 언급해둔다.⁵⁾

II. 남파 박찬익 집안의 독립운동 자료

남파 박찬익은 1945년 광복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에서 환국할 때, 중국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우리 동포들의 안전과 권익을 대표하기 위해 중국에 주재했던 주화대표단 단장으로 활약하였다. 그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박정일(朴精一) · 박창익(朴昌益) · 박순(朴純)의 별명을 사용했으며, 유창한 중국어 실력으로 임시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전담하였다.⁶⁾ 박찬익은 나철(羅喆)의 권유로 대종교에 입교하여 정교를 맡았고, 예관(睨觀) 신규식(申圭植, 1879~1922)과 함께 상해에서 동제사(同濟社)를 조직하는 등 대종교의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 · 활동하였다. 광복군이었던 아들 박영준(朴英俊, 1915~2000)이 신규식의 동생인 신건식(申健植, 1889~1955)의 딸 신순호(申順浩, 1922~2009)와 혼인하여 2대에 걸친 독립운동가 집안이 되었다.

박찬익의 호는 남파(南坡)였다. 망명지 중국에서 고향 파주를 그리워하며 지었다고 한다. 그곳은 그가 되찾아야 할 조국을 뜻했다. 중국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길림 · 상해 · 북경 등 이곳저곳을 떠돌며 언제 광복을 맞아 돌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했던 그였다. 어쩌면 죽어서도 가지

5) 이에 대해서는 「한말 일제강점기 단군 영정의 등장과 보급」(미발표)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6) 남파박찬익전기간행위원회, 『남파 박찬익 전기』(을유문화사, 1989); 李延馥, 「南坡朴贊翊研究」, 『국사관논총』 18(국사편찬위원회, 1990) 참조.

못하고, 자식들도 자신과 같이 나라 없는 유망민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을 걱정했을 것이다. 박찬익의 6대 조부로 정조 때 우의정을 지낸 박종악(朴宗岳, 1735~1795)도 북경을 오가다 세 번째 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청나라 땅에서 죽어 살아오지 못했다.

나는 평생을 두고 내가 한 일을 남에게 알리려 하지 않았고 또한 알아주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난 감투를 쓰고 싶다거나 출세를 하고 싶다거나 하는 생각을 전혀 가져보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무엇이든지 할 뿐이었지. 나는 기둥이나 대들보라기보다는 남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또한 그것이 없으면 제대로 서기 어려운 주춧돌이 되고 싶었다.

내 나라, 내 겨레를 위하는 일인데 그걸 누구에게 알리겠느냐, 또한 알아주기를 바라겠느냐. 주춧돌이 되겠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었다. 그러니 내가 죽거든 요란스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아버님이 계신 망우리에 묻어 주려무나.⁷⁾

박찬익의 유언이었다. 그는 기둥이나 대들보보다 주춧돌이 되기를 원했다고 한다. 조국 광복을 위해서라면 아무 것도 필요 없었다. 그리고 광복을 맞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다툼으로 그 앞날은 계속 혼미했다. 죽은 후 이봉창·윤봉길 등을 모신 효창공원의 독립운동가 묘지에 묻힐 것도 죄스러워 했다고 한다. 죽음을 앞둔 그에게 광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기 때문이다.

기증자료는 총 681건 2,205점이다. 박찬익 선생과 신규식 선생, 그의 동생인 신건식(1889~1955) · 오건해(1894~1955) 부부, 그들의 자녀인 박영준 · 신순호 부부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운동 관련 사진 및 문서 자료들이 많고, 신순호 여사의 복식 자료 또한 상당하다. 〈중국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조직부 공문〉과 신건식 부부의 만장(輓章), 박영준 · 신순호 부부의 결혼증서, 광복군 · 주화대표단 관련 사진자료, 신규식의 『아목루(兒目淚)』(稿本), 『한국흔(韓國魂)』의 원고가 된 『수견수록』, 중국 국민당 인사들이 신규식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류진홍조(纏塵鴻爪)』 등이 대표적이다.

7) 남파박찬익전기간행위원회, 위의 책 참조.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청사



박찬익과 임향섭, 김구, 왕수백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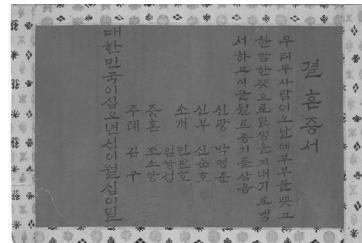
주화대표단 시절 박찬익



아목루(신규식 시집)



박영준 · 신순호 부부 결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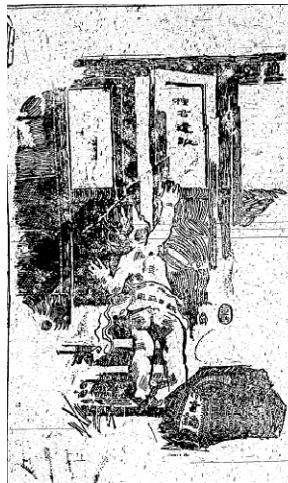
박영준 · 신순호 결혼증서

III. 동아일보의 단군영정 현상모집 캠페인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1일 창간사에서 “조선민족의 표현기관을 자임”하였다.⁸⁾ 이것은 동아일보의 3대 사시(社是) 중에 첫 번째 항목이다. 그리고 김동명이 그런 삽화를 축하 만평으로 창간호 3면에 실었다.

내용은 언론이라는 바구니를 전라(全裸)의 어린아이를 매개로 동아일보가 '단군유훈(檀君遺訓)'을 쫓아가겠다는 다짐이다. '단군유훈'을 특정하여 공론화한 것은 이후 동아일보가 단군을 중심으로 조선민족의 독립의식 고취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예고한 것이었다. 그리고 열흘 후인 4월 11일 동아일보는 일요일판 3면에 단군영정을 현상 모집하는 사고(社告)를 게시했다.⁹⁾ 동아일보가 예고한 첫 번째 편이었다.

이후 동아일보에서는 대종교의 어천절과 개천절 기념행사를 보도하고, 구월산·백두산·강화·평양 등지의 단군 유적을 찾아 소개했으며, 단군과 관련한 최남선 등의 글을 장기간 실어 사시(社是)를 구체적으로 실천해갔다. 1926년 2월 11-12일에 실린 <단군부인(檀君否認)의 망(妄), 「문교(文教)의 조선(朝鮮)」의 광론(狂論)>, 같은 해 3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77회에 걸친 <단군론(檀君論), 조선(朝鮮)을 중심(中心)으로 한 동방문화연원연구(東方文化淵源研究)>,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3회 연재된 <단군(檀君)께의 표성(表誠) 조선심(朝鮮心)을 구기(具期)하라>, 1928년 8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72회 연재된 <단군(檀君)과 삼황오제(三皇五帝), 신도(神道)를 통(通)해서 보는 고조선(古朝鮮) 및 지나(支那)의 원시규범적(原始規範的) 유사> 등이 그것이다.¹⁰⁾ 또 1932년 5월 6일부터 12일까지 3회 연재된 오기영의 <강동(江東) 대박산(大朴山)에 있는 단군릉봉심기(檀君陵奉審記)>, 같은 해 7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51회 연재된 현진건의 <단군성적순례(檀君聖跡巡禮)>, 1932년 5월 18일부터 1935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된 단군릉수축운동 캠페인, 1934년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동아일보 1920년 4월 1일
창간호 십화(3면)

8) 『동아일보』 1920.4.1. 창간사 참조.

9) 『동아일보』 1920.4.11. 참조.

10) 단군을 중심으로 한 최남선의 조선학 연구에 대해서는 이영화, 『최남선의 역사학』(경인문화사, 2003); 전성곤, 『일제하 문화 내셔널리즘과 침체의 최남선』(어학연구총서 43)(제이앤씨, 2005); 류시현, 『최남선 연구: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의 문화』(역비한국학연구총서 32)(역사비평사, 2009) 등 참조.

6회 연재한 안재홍의 <단군성적(檀君聖蹟) 구월산등람지(九月山登覽誌)> 등을 실었는데, 이들 역시 동아일보의 사시인 '단군유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¹¹⁾

그리고 열흘 후인 4월 11일 동아일보는 일요일판 3면에 단군영정을 현상모집하는 사고(社告)를 게시했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檀君影幀懸賞募集

檀君은우리民族의宗祖이시오우리權域에건국하신第一人이시오가장神聖하신大偉人이시라建國하신事業이歷然하시고經國하신歷史가燦然하시고神聖하신魂靈이嚴然하시사今日吾等子孫에傳케되시고乘케되신지라우리는仰慕와尊崇을難禁하는衷心으로써崇嚴하신檀君尊像을구하야讀者와共히拜하려고茲에本社는懸賞하야敢히尊像을募集하오니江湖兄弟는應募하시오.

應募注意

一, 尊像은古來로保管되였던것을發見하여模寫함도良好하며歷史的色彩를包含케하고神聖과崇嚴과高尚을象徵하야創作한尊像을특히歡迎함

一, 畫本及畫의種別은制限치안이함

一, 畫本은一切此를還附치안이함

一, 畫本의表封에는반드시『懸賞應募原稿』라朱書함을要함

一, 畫本의應募期限은四月三十日까지提出함을要함

一, 畫本의審查는本社編輯局에서嚴正히此를行하되一等一名, 二等二名, 三等三名을選擇하여當選된 畫本은May 10日本紙에發表함

一, 賞은審查後等級을定하야本紙에揭載된當選者에게送呈함(賞의品種은追後發表함)

檀君紀元四千二百五十三年四月 東亞日報社(《동아일보》 1920.4.11.)

동아일보의 단군영정 현상모집의 목적은 단군이 우리민족의 종조(宗祖)이고 역사적으로 가장 신성한 위인이어서 중심으로 봉안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이미 지적되었듯이 신화속의 인물을 '이미지'라는 구체적 실체를 통해 역사로 재구성하는¹²⁾ 작업의 하나였다. 7개 항목의 응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항목만 구체적인 응모 기준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그 대상으로 예부터 보관되었던

11) 일제강점기 동아일보의 단군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혜안, 2007); 김성환, 『日帝强占期 檀君陵修築運動』(경인문화사, 2009) 참조.

12) 최유경, 「1920년대 초반, 《동아일보》 삽화에 표현된 한국고대신화」, 『종교와 문화』 23(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12) 참조.

영정을 모사한 것이나 새로운 창작품 모두를 포함시켰다. 특히 후자의 경우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당시까지 전해져오던 단군영정에 대한 동아일보를 비롯한 조선민족의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다. 즉 단군영정으로 전하는 것이 많지 않았고, 그 수준도 높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전래되어 온 단군영정 대부분은 역사적 색채에서 불충분했고, 신성(神聖)과 승엄(崇嚴), 고상함을 보여주지 못하다는 평을 받았다. 기자와 비교하여 조선시대에 단군영정 자료나 관련 기록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동아일보에서는 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① 역사적 색채를 포함시키고 ② 신성(神聖)과 승엄(崇嚴), 고상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창작한 존상(尊像)의 응모를 유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모집의 조건에서 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창작한 존상(尊像)의 응모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에서는 당초에 단군영정 현상모집 캠페인을 20일간 실행하여 응모된 작품을 즉각 심사한 후 5월 10일에 당선작 6점을 동아일보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었다.¹³⁾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응모 건수와 작품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5월 1일 ‘응모자의 희망으로 기한을 약간 연기한다[應募者의 希望으로 期限少延]’는 중간 제목을 덧붙이고 응모 기간은 5월 15일까지 보름 연기되었고, 그 결과를 6월 1일 발표할 것이라고 재공모하였다.¹⁴⁾ 그리고 이 사고(社告)는 5월 6일과 7일에 3면에 실렸고,¹⁵⁾ 8일과 10일에는 응모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 1면으로 옮겨¹⁶⁾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렇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당초 6월 1일 발표 예정과 달리 6일에 다음과 같은 사고가 2면에 발표되었다.

檀君影幀에 就하야

應募期限及發表期延期去一日로써結果를發表할豫程이던檀君影幀의懸賞募集件은所定期限內에到着한應募畫幅이五十六件에達하야豫期以上의多數한應募가有하았으나元來檀君의影幀을創作함은其配意와成案이實로容易치아니하야此에非常한時間을費하고且筆을執한後에도迅速히滿足한結果를得키難함으로相當한期間의猶豫를希望하는人士가多數함을因하야一時發表를中止하고應募期限을本年九月末

13) 같은 내용의 社告가 이튿날인 4월 12일, 21일, 22일, 23일, 26일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3면에 실렸다. 《동아일보》1920.4.12.-4.26. 참조.

14) 《동아일보》1920.5.1. 참조

15) 《동아일보》1920.5.6.-5.7. 참조

16) 《동아일보》1920.5.8., 5.10. 참조

日까지退定하야其後慎重한審查를經하야舊曆十月初三日開天節에本紙上에發表하겠사오니有志人士는續續應募하시압. 再當初의募集規定은應募한畫本을一切還附치아니하기로하얏스나當選된以外의畫本은審查發表後應募者의希望이有한時는此를還附함. 東亞日報社(《동아일보》 1920.6.6.)

결과는 56건의 단군영정이 접수되었으나, 당선작이 없어 9월 말까지 다시 기간을 연장하여 음력 10월 3일 개천절(양력 11월 13일)에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단군영정은 조선인을 살게 하고 결집시키는 조선혼(朝鮮魂)의 기원을 보여주는 것이었기에¹⁷⁾ 그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때의 약속도 지킬 수 없었다. 1920년 9월 26일부터 동아일보가 무기정간 되었기 때문이다.¹⁸⁾



단군 천제의 영정

금일, 개천성절開天聖節

오늘 22일은 음력으로 10월 초3일이다. 이날은 우리 조선 민족의 선조가 되시는 단군께서 태백산 단목아래 탄강하신 날이므로 이때부터 우리 풍속에 10월 상달이 되면 집집마다 떡을 하여 먹는 것도 이날을 기념함이다. 금일 하오 1시에는 시내 계동에 있는 대종교 남도본사에서 개천경 배식開天敬拜式을 거행한다는데 금년은 단군 기원 4255년이라고 한다(사진은 단군 천제의 영정)¹⁹⁾

17) 동아일보는 6월 22일 1면 사설인 〈自精神을喚하고舊思想을論〉에서 이런 점을 밝히고 있다. 《동아일보》 1920.6.22, 참조.

18) 동아일보는 조선일보와 함께 일제의 강한 언론탄압책에 맞선 기사를 지속하다가 1920년 9월 25일에 〈제사문제를 재론하노라〉라는 사설로 첫 징간을 당했다. 이 사설이 일본 황실의 神器를 비판했다는 구실이었다. 그리고 1921년 1월 10일 복간되었다.

1922년 11월 22일은 개천절이었다. 마침내 2년 이상을 끌던 단군영정이 개천절을 맞아 공개되었다. 〈단군 천제의 영정〉이다. 이때 공개된 영정이 단군영정 현상모집 캠페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동아일보의 캠페인과 대종교의 단군영정 봉안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렇게만 파악할 수 없다. 이들은 일정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이 영정은 대종교에서 봉안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것이 동아일보에 실렸다. 결국 동아일보가 대종교의 영정을 단군영정 모집 캠페인의 성과로써 공인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이 영정은 단군영정의 기준이 되었고, 1930년 11월 23일의 개천절에 이윤재(李允宰)의 〈개천절, 단군강탄 4386회의 기념〉이란 짧은 글과 함께 〈한배단군상〉으로 동아일보 5면에 다시 실렸다.²⁰⁾ 동아일보의 단군영정 현상모집 캠페인에 접수된 56건의 작품은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신성함과 숭엄하고 고상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²¹⁾ 결과론적인 것이지만, 대종교에서 봉안하고 있던 단군영정은 동아일보의 단군영정 모집 캠페인에 따라 이후 단군영정의 기준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

IV. 박찬의 집안 소장 단군영정

이 단군영정은 사진본으로 전체가 14.5×20cm, 영정만은 11.4×16.4cm 크기의 반신상이다. 정식명칭은 〈단군대황조어진(檀君大皇祖御眞)〉이다. ‘대황조단군’은 대종교에서 모시고 있는 단군에 대한 공식 명칭이다. ‘대황조’란 “가장 지극한 조상” 정도의 뜻으로, 조선 민족이 단군에서 출발하는 혈연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 표현이다. 혹 ‘대황조단군성신(大皇祖檀君聖神)’이라고 극존칭하기도 한다.²²⁾ 우리민족은 대황조단

19) 이 자료의 정식 명칭은 ‘단군대황조어진(檀君大皇祖御眞)’이다. 《동아일보》 1922.11.22. 참조.

20) 《동아일보》 1930.11.23. 참조.

21) 동아일보는 1935년 4월 6일 창간 15주년기념 특집에서 창간 직후 전개한 단군영정 모집 캠페인이 사실상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음을 실토하고 있다. “단군께서는 우리 겨레의 삶과 영의 원천이시다. 우리의 간곡한 정성은 그 거룩하신 존상이나마 길이 보전코자 창간 후 첫 사업으로 그 존상을 공모해 보았으나 아득한 반만년전의 일이오, 첫째 어려운 과제인 만큼 이에 응모한 인원이 겨우 56건으로 그 중에 뽑을만한 것이 없어서 결국은 약속 없는 시간으로 흘려보내게 되고 말았다”(《동아일보》 1935.4.6.).

군에서 출발하는 신성민족이었고, 그 역사는 신성의 역사였다는 백암 박은식의 ‘대황조단군론(大皇祖檀君論)’과 일치한다.²³⁾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과정과 관련된 민족의 개념도 일정부분 포함하고 있다.

영정의 아래에는 “제강(帝降) 4374년, 건국 4250년 11월 17일(舊曆 10월 3일) 개천절 경축모임에서 삼가 만들다”라고 쓰여 있다. 1917년 개천절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하여 보급용으로 배포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제작의 주체는 후술하겠지만, 대종교 서도본사였을 것으로 보인다. 제강(帝降)은 단군 이전의 신시 시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미 조선 중기에 허목(許穆, 1595~1682)의 『동사(東事)』에서부터 단군의 이전 시대로 설정된 바 있다.²⁴⁾ 그 4374년과 고조선 건국 4250년 사이에는 124년의 틈이 있다. 대종교에서 설정하고 있는 고조선 및 단군에 대한 역년인식이 조선시대까지의 그것과 달랐던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김교현(金敎獻)은 『신단실기(神檀實記)』에서 〈동사유고(東事類考)〉라는 자료를 인용하여 신라의 화가 솔거(率居)가 꿈에서 본 단군어진을 그렸다고 했다. 또 고려후기에 평장사로 있던 이규보(李奎報)가 지은 시에서 “서울 밖에서 집집마다 모신 신조(神祖)의 화상은 당시의 태반이 이름난 화가에게 나왔다”고 읊었다고 한다.²⁵⁾ 그런데 김교현이 인용했다고 밝힌 〈동사유고〉가 어떤 자료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규보가 지었다는 시는 그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전집』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종교적 역사관이 투영되어 저술된 『신단실기』의 곳곳에서 역사적 사실들이 확대되거나 왜곡되어 서술된 부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²⁶⁾ 신라시대 단군영정의 제작설과 고려후기까지의 전래설은 솔거와 이규보에게 단군영정의 가치와 권위를 기대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종교의 단군영정 봉안과 전수 등에 대해서는 1909년 1월 중광(重光)

22) 김성환, 「〈단군교포명서〉의 단군인식」, 『국학연구』 13(사)국학연구소, 2009) 참조.

23) 김도형, 「1910년대 박은식(朴殷植)의 사상 변화와 역사인식-새로 발굴된 자료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14(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1) 참조.

24) 한영우, 「허목(許穆)의 고학과 역사인식: 『동사(東事)』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11-3 (일지사, 1985); 박혜현, 「허목의 『동사(東事)』 저술(著述)과 그 동기」, 『한국사상과 문화』 21(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참조.

25) 김교현, 『神檀實記』 〈神異徵驗〉 率居神畫(한뿌리, 1987) 참조.

26) 종교 계열 역사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박광용, 「대종교 관련문헌에 위자 많다2: 『신단실기』와 『단기고사』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역사비평』 18(역사비평사, 1992) 참조.

직전인 1908년 12월 초 백두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하는 소위 백봉(白峰) 집단이 나철(羅喆)·정훈모(鄭薰模) 등에게 교리를 전수하는 과정에서의 전래와 이후 교단에서의 봉안을 위해 김은호(金殷鎬, 1892~1979)·지운영(池運永, 1852~1935)·안중식(安中植, 1861~1919)의 모사설(模寫說) 등을 중심으로 초보적인 논의에서 진행되고 있다.²⁷⁾ 특히 전래 과정은 극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신비한 이야기로 분식되어 있고, 모사자와 관련해서는 유력한 증거 없이 억측이 거듭되어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단군영정으로 알려진 최고본은 1908년 정인호(鄭寅琥)가 지은 『초등대한역사(初等大韓歷史)』에 삽화 형식으로 실린 <동국(東國)을 창립(創立)하신 단군(檀君)의 상(像)>이다. 또 1910년 신궁봉경회건축소가 진행한 《신궁건축지(神宮建築誌)》에 수록된 대조선국시조 단군천황(大朝鮮國始祖檀君天皇)의 목판본 화상(畫像)이 있다. 이 자료는 1909년 일제와 친일파들이 단군과 천조대신(天照大神)과 이태조(李太祖)를 함께 모시는 일한신궁(日韓神宮)을 건립하려는 계획서 성격을 가진다.²⁸⁾ 일한신궁의 건립은 “지금 두 나라 사람의 친소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신궁(神宮)을 통해 본다면 모두 하나의 자손”이라 하여 《신궁건축지》의 서문에 명백하게 밝혀져 있다.²⁹⁾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앞세워 유교적 제의(祭儀)에 신도(神道)의 요소를 결합하여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유포하기 위한 통감부의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되었다.³⁰⁾ 1909년 8월 21일 개토제를 지내고, 9월 4일 해당지역인 안암동 일대의 민유삼림을 해제하는 조치가 10월 6일의 관보에 게시되기도 했다.

《신궁건축지》에는 대조선국시조 단군천황(大朝鮮國始祖 檀君天皇)과 대한국 태조고황제폐하(大韓國 太祖高皇帝陛下)의 화상(畫像)이 수록되었음에 비해 그 중간에 위치할 대일본국시조 천조황대신(大日本國始祖 天照

27) 최현호, 「檀君天眞 小考에 인용된 자료를 중심으로」, 『비블리오플리』 4(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1993); 조준희, 앞의 글; 임채우, 「대종교 단군 영정의 기원과 전수문제」, 『선도문화』 11(2011) 참조.

28) 최광식, 「『神宮建築誌』의 내용 및 의미」, 『단군학연구』 3(단군학회, 2000) 참조.

29) 《神宮建築誌》 서문 참조.

30) 《대한매일신보》 1909.7.28. 잡보 「神宮計劃」; 黃琰, 『梅泉野錄』 참조. 하지만 1910년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됨으로써 더 이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중단되었다. 최광식, 위의 논문; 서영대, 「한말의 檀君運動과 大倧敎」, 『한국사연구』 114 (한국사연구회, 2001) 및 김대호,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신궁 건립과 운영」, 『한국사론』 50(서울대 국사학과, 2004) 참조.

皇大神)의 화상은 싣고 있지 않다. 단군과 태조고황제에 비교하여 천조황 대신의 위격(位格)이 최고라는 의식적인 장치였다. 《신궁건축지》에 실린 단군영정은 최소한 1909년 8월 이전에 이준용(李浚鎔) · 이지용(李址鎔) · 민영희(閔泳徽) 등 친일파들에게까지 공식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에서 한말에 이미 아래와 같은 영정의 유통범위가 넓었음을 알려준다. 즉 단군도상(檀君圖像)의 제공은 신궁봉경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렇다면 1909년 6월 이전에는 신궁건축지에 실린 도상의 원본이 널리 알려진 대종교의 단군영정과 같은 계열의 영정이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그것은 1922년 11월 개천절을 통해 공개된 단군영정과 비교하여 같은 유형이었음이 주목된다. 《신궁건축지》에 실린 대한국태조고황제폐



대조선국시조 단군천황
(《신궁건축지》, 1910)



부여 천진전 단군 영정³¹⁾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69호,
34cm×53cm)



대한국 태조고황제폐하
(《신궁건축지》, 1910)



조선태조어진(국보 제317호)

31) 「부여 천진전 단군 영정」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나철에

하(大韓國太祖高皇帝陛下)의 목판본 화상과 조선태조어진(국보 제317호)을 비교해보면 보다 분명해진다.³²⁾ 이 두 가지 초상 역시 큰 틀에서 볼 때 기본적인 형식이 다르지 않다.

1910년 9월 23일, 매일신보에서는 단군영정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 1904년 7월 18일 영국인 배설(裴說, Ernest Thomas Bethel)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를 일제가 사들여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역할로 성격을 바꾼 경술국치가 있던 8월 29일에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단군대종교(檀君大倧敎)에서 화가에게 3본의 단군영정을 모사하여 도사교본부와 남사교본부·북사교본부에 봉안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³³⁾ 이때는 또 나철 등이 중광한 단군교가 북부지사교(北部支敎)를 맡고 있던 정훈모의 친일 행위와 눈앞에 닥친 일제의 예상되는 탄압으로 대종교와 단군교로 분리된 지 한 달이 갓 지난 상황이었다. 매일신보에서 확인되는 ‘단군대종교’라는 용어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단군영정의 봉안 목적은 최소한 그 주도를 어느 곳에서 하고 있었든지, 단군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조선인들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단군의 진상(眞像[진영])이 원래 어디에 모셔져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단군영정이 보급을 위해 사진본으로 제작된 것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였다. 대종교에서는 이미 1911년부터 교인들에게 단군영정을 봉안하게 하기 위해 영정을 사진으로 인출하여 나누어 주었다.³⁴⁾ 1912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신채호·김하구(金河球) 등이 권업회의 기관지로 창간한 권업신문에서는 1912년 12월 15일 평양 숭령전(단군사당)에서 예부터 단군영정을 봉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권업신문 제34호의 잡보(雜報)에 <단군대왕조어진(檀君大王祖御眞) 촬영>이란 제목의 기사가 그것이다.³⁵⁾ “숭령전에 봉안된 단군영정을 수년 전에 조선의 한 사진관에서 촬영했는데, 이것을 최병숙이라는 사람이 한 본을 구하여

의해 1910년 8월 대종교에 봉안되었던 판본으로 강우가 보관했다고 전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32) 『神宮建築誌』 참조.

33) 『大倧敎重光六十年史』에서는 나철이 1910년 9월 21일(음8.21) 유교식 신위를 없애고 단군영정으로 교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대종교총본사, 『大倧敎重光六十年史』(1971) 참조.

34) 『調達季報』 1911.4.23.; 『慶南日報』 1911.4.23. 「檀君寫眞奉安」 참조.

35) 『권업신문』 제34호(1912.12.15.), 「단군대왕조 어진 발행」 참조.

가지고 있었다. 이에 일전에 그곳에 살고 있는 김태봉·함동철씨와 상의하고 중국인이 운영하던 이완사진관에서 다시 촬영하여 조선인들에게 한 본씩 봉안하게 함으로써 건국 시조를 기념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권업신문의 내용은 숭령전에서 모셔졌던 단군영정의 원본은 이미 없어져 최병숙이 지니고 있던 사진본을 숭령전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증을 하도록 하여 중국인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재촬영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단군영정의 전래와 제작에 대해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조선 세종 때 창건된 단군사당인 숭령전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단군영정을 봉안하고 있었다. 본래 숭령전은 국가제사에서 역대 시조의 위패를 모신 사당 중의 하나로, 유교적인 예제에 의해 ‘조선후단군지위(朝鮮侯檀君之位)’ 또는 ‘조선단군(朝鮮檀君)’이라는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둘째, 단군영정은 1912년 12월 당시에 이미 사라져 그곳에 봉안했던 영정이라는 사진본을 어렵게 얻어 현지 주민의 고증을 거쳐 재촬영할 수밖에 없었다.셋째, 재촬영한 단군영정은 보급용으로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즉 단군영정은 1912년대 말부터 보급을 위한 휴대용으로 제작되고 있었다고 한다.³⁶⁾ 권업신문에서는 단군대황조 영정 1본을 50전에 판매한다는 신문사 사고(社告)를 같은 날(12.15)과 12월 29일, 1913년 1월 5일, 2월 9일 등 4차례에 걸쳐싣고 있다.³⁷⁾ 그리고 단군영정은 보급용 사진본으로 여러 차례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중 하나가 대종교인 단암 이용태(李容兌, 1890~1966)가 1928년 2월 12일 대종교에 입교할 무렵 남도본사에서 받아왔다고 전하는 전신상의 단군영정(사진본)이다.

대종교 측의 자료에 따르면, 백봉대종사가 나철(1863~1916)에게 도통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1908년 12월에 두일백(杜一白)을 통해 『삼일신고』·『성경팔리』 등의 경전류와 함께 단군 영정을 홍암 나철과 정훈모에게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상 의문이 있다. 어찌되었건

36) 나철과 결별 후 정훈모가 이끄는 단군교총본부에서도 단군영정을 인쇄하여 총독부의 출판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毎日申報』 1913.1.1. 참조.

37) 사진으로 제작된 보급된 단군영정은 1916년 8월 10일 구월산 삼성사에 봉안되었다고 한다. “초十일…(神兄께서) 곧 한배검 天眞을 수도실 북벽에 받들어 모시니 이 천진은 작은 사진으로 신형께서出入할 때마다 항상 받들고 다니는 것이다.”(김교현·윤세복, 『홍암신형조천기』(대종교출판사, 2002) 참조.)

1909년 1월 15일 나철·오혁·강우·최욱·유근·정선·이기·김인식·김춘식·김윤식 등 10여명은 서울 북부 재동의 여섯 칸 초가에서 〈단군교포명서〉를 공포하고 단군교를 중광하였다. 이때 단군은 ‘대황조 단군성신지위(大皇祖檀君聖神之位)’라는 유교식의 위패[紙牌]로 북벽에 모셔졌다.³⁸⁾ 단군영정을 모셨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에 유통되었던 여러 종류의 단군영정은 몇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타입을 화본(畫本)이라고 명칭한다.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대종교의 단군영정은 부여 천진전에 모셔졌던 것과 같은 화본의 것이다. 봉안 장소를 기준으로 〈부여 천진전 단군영정〉이라고 불린다. 지금은 국립부여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이 영정은 대종교 남도본사의 지도자였던 강우(姜虞, 1862~1932)가 소장했던 것이라고 전한다. 그런데 〈부여 천진전 단군영정〉은 1922년 개천절에 동아일보에 실린 〈단군 천제의 영정〉과 같은 화본으로 보인다. 강우가 소장했었다는 단군영정이 동아일보에 수록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최소한 같은 화본의 영정이 실린 것은 분명하다. 〈부여 천진전 단군영정〉과 같은 화본의 단군영정은 1922년 11월 이전에 제작되어 대종교에서 봉안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과 〈박찬의 집안 소장 단군영정〉은 많이 닮아 있다. 전신상과 반신상이라는 차이를 빼고는 거의 흡사하다. 안면과 수염의 표현 등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화본의 작품으로 보이지 않는다. 박찬의 집안 소장본은 강우가 소장했었다는 〈부여 천진전 단군영정〉과 같은 전신상의 화본을 대상으로 상반신을 그려 인쇄한 것이다. 그리고 〈박찬의 집안 소장 단군영정〉과 〈부여 천진전 단군영정〉·〈단군 천제의 영정〉(동아일보)을 비교할 때, 제작시기에서 앞서는 작품은 1917년 제작된 박찬의 집안 소장본이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앞서 전해지며 봉안되고 있던 〈부여 천진전 단군영정〉·〈단군 천제의 영정〉(동아일보) 계열의 영정을 모본으로 반신상의 보급용 영정사진을 제작한 것이 〈박찬의 집안 소장 단군영정〉이다. 그 목적은 늘 가까이에서 봄으로써 단군을 중심으로 조선민족의 공동체 인식과 독립정신을 북돋는 데 있었다.³⁹⁾

38) 김성환, 앞의 논문(2009) 참조.

39) 이와 관련하여 한말 고종의 초상사진 배포를 대한제국 황제의 권위를 보여주는 표상으

〈박찬익 집안 소장 단군영정〉은 현재 전하는 〈부여 천진전 단군영정〉·〈단군 천제의 영정〉의 편년을 제시하는 기준 작품으로, 동아일보를 통해 공개된 단군영정의 상한을 5년 이상 올려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 반신상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영정 형태의 단군상(檀君像)으로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제일 이른 시기의 것이다.



부여 천진전 단군영정
단군영정



박찬익 집안 소장 시진본
단군영정



단군 천제의 영정
(동아일보) 1922.11.22.)

『남파 박찬익 전기』에 따르면, 박찬익은 1911년 정월 대종교의 지교가 되었고, 2월 만주로 망명했다. 1915년 봄에 대종교의 상교가 된 그는 가을에 길림·북경·노령 등에 대종교 총본사 지회를 설립했다. 이해 11월 중국에서 대종교의 포교 금지령이 내려지자 해금 교섭도 진행했다. 대종교단에서 그는 단군의 위폐나 영정을 모신 경배식에 참여하고 또 이를 진행했다. 이것은 망명 이후부터였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동아일보에 실린 〈단군 천제의 영정〉과 같은 종류의 영정이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이후 상해를 중심으로 신규식과 동제사를 결성하는 등 독립운동을 펼쳤다.⁴⁰⁾ 1917년 가을에 그는 신규식과 상의 끝에 국내로 잠입을 결행했다. 목적은 개화파의 한 사람이었던 박영효를 독립운동에 끌어들 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영효의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박찬익이 상해로 언제 돌아갔는지 불확실하지만, 그는 국내에서 안재홍·정두화·

로 이해한 연구성과를 참조할 수 있다. 이은주, 「개화기 사진술의 도입과 그 영향—金鏞元의 활동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3(진단학회, 2002) 참조.

40) 남파박찬익전기행위원회, 앞의 책 및 이연복, 앞의 논문 참조.

윤보선 등을 만나 독립운동자금의 조성과 윤보선의 유학에 대한 자문 등을 했다.

〈박찬익 집안 소장 단군영정〉은 1917년 11월 17일(음력 10월 3일) 개천절을 기념해서 제작되었다. 앞서 밝혔듯이 이 영정에서 ‘대황조단군’은 대종교에서 단군을 지칭했던 공식적인 명칭이었다. 따라서 그 제작 주체는 신규식이 주관하던 상해의 대종교 서도본사였음이 분명해진다. 대종교 서도본사는 1914년에 개설되어 신규식이 책임자였고, 1922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서도본사는 1922년 신규식 사후 서1도 제1지사와 제2지사(=호강시교당)로 구분되었는데, 전자는 박은식, 후자는 민제호가 책임(전무)을 맡고 신건식이 친무로 있었다. 민제호의 동생 민필호에 관한 전기에 따르면, 호강시교당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보았는데 박찬익이 참석하였다고 한다.⁴¹⁾ 민필호의 장인이 신규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군영정도 이곳에 봉안되어 있었을 것이고 박찬익과 신건식도 이곳에서 얹어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자문과정에서 국학연구소 조준희 소장은 “1917년 단군영정 제작의 주체는 신규식으로 보이며, 서도본사(신규식 거처)가 서1도본사 제2지사(호강시교당)(사위 민필호 거처)로 간판만 바뀌고 신규식의 동생인 친무 신건식을 통해 다시 떨어진 신순호에게 전해진 것이 보다 명확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또 “서도본사 소속 임원이 아닌 박찬익이 이곳에서 영정을 받아갔다면,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백순과 북간도 총본사 김교현의 지령을 받고 상해에 왔던 정신, 나철의 측근으로 총본사, 서도본사의 핵심 인물이었던 조완구, 나철의 시봉자 6인 중 한 사람이었던 김두봉 등도 이 단군영정을 공유했을 것”이라는 조언을 주었다. 즉 이 단군영정은 서도본사가 주체가 되어 제작한 것으로 총본사 단군영정과 다른 형태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참고로 《아목루》에 실린 신규식의 시 중에서 〈실내즉경(室內卽景)〉(연도미상)에는 ‘윗층에 단군의 신상(神像)을 봉안하였다’고 밝혀져 있다.⁴²⁾

이 영정의 인쇄·배포에 신규식과 동제사가 적극 관여했다는 것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신규식이 상해로 망명한 이후 1912년부터 대종교 서도본사는 매주 일요일인 경일(敬日)과 매년 어천절과 개천절을 맞아

41) 김준엽, 『石麟 閣弼鎬傳』(나남출판, 1995) 참조.

42) 《아목루》, 〈室內卽景〉 참조.

기념식을 거행했을 것이다. 처음부터 단군영정을 봉안하고 모임을 가졌는지 알 수 없지만, 1917년에는 상해의 대종교인들에게 보급용 단군영정을 배포하여 개인적으로도 쉽게 봉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역시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

한편 1917년 가을 이후 박찬익이 언제 상해로 돌아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앞의 전기에 따르면, 그는 1918년 정월 2일 상해 동제사 2층 창가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⁴³⁾ 그렇다면 1917년 12월 어느 시기에 상해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해 가을부터 상해로 돌아가기 2~3개월 동안 국내에서 그의 일정이 구체적이지 못하지만, 1917년 11월 17일 상해에서 있었던 개천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박찬익이 이 영정을 소장하게 된 것은 상해로 돌아간 이후 신규식에게 직접 전달받았거나, 함께 활동했던 다른 동지에게서 전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찬익 집안 소장 단군영정〉⁴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 영정은 나철이 등사했던 전신상 영정의 이본을 신규식이 상해로 망명하면서 가지고 가서 대종교 서도본사에 봉안했거나, 이를 토대로 현지에서 다시 제작했던 영정일 수 있다. 그리고 대종교 서도본사에서는 최소한 1917년 개천절에 즈음해서 그 영정의 상반신만 편집하고 다시 인쇄하여 경축식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것은 더 이른 시기일 가능성도 있다. 신규식·박찬익 등과 함께 상해에서 활동했던 신성모(1891~1960) 역시 대종교 입교 후 항상 단군 영정을 휴대하거나 집에 모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박찬익 소장본과 같은 것이었다는 유족의 증언은 이런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다. 동아일보에서는 상해에서 연례적으로 거행되었던 전국기념일[개천절]의 경축식이 1925년 11월 27일 오전에 청년동맹회와 일공학(一公學)에서 있었고, 오후에 민단

43) 『남파 박찬익 전기』의 박찬익이 “1918년 정월 2일 동제사 2층 창가에 앉아 있었다”는 서술은 그의 전기 소설인 『주춧돌』(박영만, 1963)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44) 필자 역시 처음에는 이 영정을 신규식 소장본으로 추정하였다. 기증자료에는 기증자인 박천민씨의 큰외할아버지 신규식의 시집인 『아목루』의 필사본을 비롯하여 『한국훈』의 원고가 된 민필호가 필사한 정리본 등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이 같은 추정의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에 이 영정은 박찬익 선생의 독립운동 자료 속에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를 〈박찬익 집안 소장본 단군영정〉으로 명칭하였다.

의 주최로 개최되었음을 보도하였다. 이때에도 동일한 보급용 단군영정이 참여자들에게 배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소개했던 화본의 단군영정은 이후 상해임시정부에서 발행했던 독립신문의 1923년 11월 10일자에 실린 〈대황조 단군초상(大皇祖 檀君肖像)(반신상), 김유동(金遺東)이 1924년에 간행한 『도덕연원(道德淵源) 부충현록(附忠賢錄)』(대동진문사)에 실린 〈단군〉(진신상), 1928년에 인쇄되어 대종교도인 이용태가 소장했던 〈삼신상제(三神上帝) 한배 단군〉(전신상), 중국 상해 배달공사에서 1937



《성경팔리》 수록 단군 영정
(국학연구소 소장본)

년 연하엽서로 발행한 〈배달시조 단군어진〉(전신상), 단군교의 정진홍이 1937년에 간행한 『단군교부홍경략』에 〈단군성조 어진〉(전신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1921년 정훈모가 간행한 『성경팔리』에는 또 다른 화본의 단군영정이 실려 있어 향후 별도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단군교부홍경략』의 단군영정만으로 볼 때 단군교에서도 다른 화본의 단군영정을 사용하지 않고, 대종교의 단군영정을 함께 봉안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다른 종류의 화본으로 그려진 단군영정도 상당수 있음이 확인된다.

이 단군영정은 1917년 11월 제작 직후부터 박찬익 선생이 사망하기까지 30년 이상을 그 마음에 깊이 간직했던 것이다. 후손들이 국노(國奴)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에게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은 유언에 짧게 언급된 “내 나라, 내 겨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렵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무엇”이었다. 그것을 지켜주는 것은 이 한 장의 사진에 담겨있는 조선흔[한국흔]을 아우르는 단군이었다. 이 빛바랜 한 장의 작은 영정은 아들 박영준·신순호 부부에게 전해졌다. 그들 역시 뺏속까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V. 맷음말

단군영정과 관련해서는 그 전래 과정과 화가에 대해 신라의 솔거를 비롯하여 여러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고 있는 단군영정은 한말 이후 일제강점기에 그려진 것이고, 이 역시 여러 화본이 전하여 그중에서도 어떤 것이 고본(古本)인지, 그 계승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만 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아일보의 단군영정 현상모집 캠페인의 결과로 대종교에서 봉안했던 단군영정이 공인되게 됨에 따라 이 화본이 공적인 영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단군유훈'을 쫓겠다는 다짐을 창간호 만평에 실은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초에 단군영정 현상모집 캠페인을 전개했다. 민족의 종조(宗祖)인 단군을 충심으로 모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캠페인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예부터 보관되었던 영정을 모사한 것이나 새로운 창작품 모두를 그 대상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의도한 바와 달리 응모된 작품이 수준 이하여서 한 차례 연기되었고, 9월에는 동아일보가 정간을 당해 중지되었다. 응모된 총 56건의 작품에서 당선작을 내지 못하자 동아일보는 1922년 개천절에 <단군 천제의 영정>이라 하여 대종교에서 봉안하고 있던 전신상의 영정을 공개하였다. 이것은 대종교에서 봉안하고 있던 단군영정이 이후 단군영정의 기준으로 자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정의 제작 시기와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하지 못하다. 1922년 개천절을 기념하여 동아일보에서 공개하고 있는 전신상의 영정이 확인되는 가장 오랜 기록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전에 단군영정이 제작되어 대종교나 단군교단에 봉안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신앙의 보급과 독립사상의 고취를 위해 보급용으로 인쇄되었다고 하지만, 그 실체는 이제까지 확인되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반신상(사진본)임에도 불구하고 <박찬익 집안 소장 단군영정>이 가지는 의미는 자못 상당하다. 1917년 개천절을 기념하여 대종교 서도본사(上海)에서 보급용으로 제작하였음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영정사진으로 단군영정의 기준작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이를 기준으로 다양하게 유통되었던 단군영정에 대한 보다 진전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1차자료

『동아일보』.

『대한매일신보』.

『兒目淚』.

『神檀實記』.

『神宮建築誌』.

2. 단행본

경기도박물관, 『어느 독립운동가 이야기』(전시도록). 2015.

김교현·윤세복, 『홍암신형조천기』. 대종교출판사, 2002.

김성환, 『일제강점기 단군릉수축운동』. 경인문화사, 2009.

김준엽, 『石麟 閔弼鎬傳』. 나남출판, 1995.

남파박찬의전기간행위원회, 『남파 박찬의 전기』. 을유문화사, 1989.

류시현, 『최남선 연구: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의 문화』(역비한국학연구총서 32).

역사비평사, 2009.

류시현, 『최남선 평전: 우리 근대와 민족주의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한겨레역사인 물평전). 한겨레출판사, 2011.

박천민 편,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박영준 자서전』. 한국독립유공자협회, 2005.

이영화, 『최남선의 역사학』. 경인문화사, 2003.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전성곤, 『일제하 문화 내셔널리즘과 침체의 최남선』(어학연구총서43). 제이앤씨, 2005.

3. 논문

김대호,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신궁 건립과 운영」. 『한국사론』 50, 서울 대 국사학과, 2004, 291~368쪽.

김도형, 「1910년대 박은식의 사상 변화와 역사인식: 새로 벌굴된 자료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1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1, 253~273쪽.

김성환, 「대종교계 사서의 역사인식: 상고사 인식을 중심으로」. 『한민족연구』 2, 한민족학회, 2006, 1~34쪽.

김성환, 「〈단군교포명서〉의 단군 인식」. 『국학연구』 7, 국학연구소, 2009, 1~28쪽.

김성환, 「단군전승의 양상을 통해본 규원사화의 자료적 성격」. 『대동문화연구』 8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300~333쪽.

김성환, 「단군 인식의 확장과 단군자손의식」. 『민족문화논총』 61, 영남대 민족문화

- 연구소, 2015, 35–68쪽.
- 박광용, 「대종교 관련문헌에 위작 많다2: 『신단실기』와 『단기고사』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역사비평』 18, 역사비평사, 1992, 108–125쪽.
- 박해현, 「허독의 『東事』 저술과 그 동기」. 『한국사상과 문화』 21,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281–306쪽.
- 서영대, 「한말의 단군운동과 대종교」. 『한국사연구』 114, 한국사연구회, 2001, 217–264쪽.
- 이연복, 「남파 박찬익 연구」. 『국사관논총』 18, 국사편찬위원회, 1990, 133–158쪽.
- 이은주, 「개화기 사진술의 도입과 그 영향: 金鏞元의 활동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3, 진단학회, 2002, 145–172쪽.
- 임채우, 「대종교 단군 영정의 기원과 전수문제」. 『선도문화』 11, 2011, 9–35쪽.
- 전인수, 「김교신의 조선산 기독교에 대한 역사적 이해: 조선흔과 조선심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4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239–267쪽.
- 정영훈, 「한국사 속에서의 ‘단군민족주의’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28, 1995, 33–55쪽.
- 정영훈, 「한민족의 정체성과 단군민족주의」. 『민족문화논총』 55,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3.
- 조준희, 「단군영정」. 『알소리』 5, 국학연구소, 2007, 93–137쪽.
- 최광식, 「《神宮建築誌》의 내용 및 의미」. 『단군학연구』 3, 단군학회, 2000, 269–313쪽.
- 최유경, 「1920년대 초반, 『동아일보』 삽화에 표현된 한국고대신화」. 『종교와 문화』 23,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12, 109–129쪽.
- 최현호, 「檀君天眞 小考에 인용된 자료를 중심으로」. 『비블리오플리』 4,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1993, 35–47쪽.
- 한영우, 「許穆의 고학과 역사인식: 『東事』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11–3, 일지사, 1985, 344–387쪽.
- 佐佐充昭, 「한말 · 일제시대 단군신앙운동의 전개: 大倧敎 · 檀君敎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국 문 초 록

단군영정과 관련해서는 그 전래 과정과 화가에 대해 신라의 솔거를 비롯하여 여러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고 있는 단군영정은 한말 이후 일제강점기에 그려진 것이고, 이 역시 여러 화본이 전하여 그중에서도 어떤 것이 고본(古本)인지, 그 계승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만 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아일보의 단군영정 현상모집 캠페인의 결과로 대종교에서 봉안했던 단군영정이 공인되게 됨에 따라 이 화본이 공적인 영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단군유훈(檀君遺訓)'을 쫓겠다는 다짐을 창간호 만평에 실은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초에 단군영정 현상모집 캠페인을 전개했다. 민족의 종조(宗祖)인 단군을 중심으로 모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캠페인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응모된 총 56건의 작품에서 당선작을 내지 못하자 동아일보는 1922년 개천절에 <단군 천제의 영정>이라 하여 대종교에서 봉안하고 있던 전신상의 영정을 공개하였다. 이것이 이후 단군영정의 기준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정의 제작 시기와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하지 못하다. 1922년 개천절을 기념하여 동아일보에서 공개하고 있는 전신상의 영정이 확인되는 가장 오랜 기록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전에 단군영정이 제작되어 대종교나 단군교단에 봉안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신앙의 보급과 독립사상의 고취를 위해 보급용으로 인쇄되었다고 하지만, 그 실체는 이제까지 확인되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반신상(사진본)이지만 <박찬익 집안 소장 단군영정>이 가지는 의미는 자못 상당하다. 1917년 개천절을 기념하여 대종교 서도본사(상해)에서 보급용으로 제작하였음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이 단군영정(사진본)으로 우리는 단군영정의 기준작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투고일 2018. 3. 13.

심사일 2018. 4. 5.

게재 확정일 2018. 5. 30.

주제어(Keyword) 단군영정(Dangun portraits), 박찬익(朴贊翊, Park Chan-ik), 동아일보(Dong-a Ilbo), 대종교(Daejong-gyo), 단군영정 현상모집 캠페인(The campaign to collect depictions of Dangun)

Abstracts

Dangun's Portrait in the Collection of Park Chan-ik(朴贊翊) Family Kim, Sung-hwan

There have been various speculations regarding the painters and transmission process of Dangun portraits—including Solgeo, a legendary artist of the ancient Silla Kingdom. Yet the portraits that we see today were created after the Korean Empir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there are also several versions of them, making it difficult to figure out which are authentic old ones and how they have been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After the Dong-a Ilbo's campaign to collect depictions of Dangun, the scroll picture enshrined in Daejong-gyo (the Great Ancestral Religion) was officially recognized and has since served as his official portrait.

With a determination to pursue “Dangun’s teaching,” Dong-a Ilbo launched in its first issue released in early April 1920 a campaign to collect portrayals of Dangun. It was aimed at celebrating Dangun, the Founding King of Korea, as the center of the nation and its people. The campaign, however, did not progress smoothly. On the National Foundation Day of 1922, after failing to choose a winner among the 56 contenders submitted, the newspaper exhibited the ‘Portrait of Dangun, God of Heaven,’ a full-figure illustration of Dangun which had been venerated within the Daejong-gyo religion. Since then, it has been accepted as the standard of his scroll portraits.

Yet little facts have been established concerning the period and process of its creation, for that one is authenticated as the oldest extant. Of course, there exist previous records stating that his portraits were created and enshrined in Daejong-gyo and other Dangun religions and they were printed to diffuse religious faith and the spirit of independence; however, the portraits themselves have not yet surfaced. In this regard, the scroll portrait image of Dangun in the collection of Park Chan-ik (朴贊翊) family takes on an important significance, although it is only a half-length figure. This is because it was produced for mass distribution in 1917 by the western headquarters of Daejong-gyo in Shanghai, in commemoration of the National Foundation Day. The discovery of this photographed portrait has enabled us to secure the true standard of such portraits of Dangun.